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경제적 행복감, 2013년 이후 최저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경제적 행복감, 2013년 이후 최저

Executive Summary

1.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	1
2. 경제행복지수 추이 및 특징	4
3. 시사점	10
<별첨> 경제행복지수 조사 개요 및 소개	11

< 요약 >

- 경기회복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일자리 불안'(42.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국민의 94.1%에 달하여, 전기(2014년 12월) 대비 3.1%p, 전년동기(2014년6월)대비 7.0%p 각각 늘어남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일자리 불안'(42.2%)이 가장 많았는데, 6개월전에 비해 크게(11.6%p) 높아졌음
 - 이어서, 가계부채 증가(29.2%)와 소득 감소(22.5%)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21.0%)과 '자녀교육비 부담'(19.9%)을 꼽았으며, 이어서 '일자리 불안'(17.7%)과 '소득감소'(17.1%), '노후준비 부족'(16.2%), '전월세 상승'(8.0%)의 순이었음
 - 20대는 '일자리 불안'(27.2%), 30대는 '가계부채 부담'(28.1%),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39.8%), 50대는 '노후준비 부족'(25.3%), 60대 이상은 '소득 감소'(33.0%)를 꼽음
 -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영향 없다'는 응답이 49.4%에 달했으나,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향 있다'(75%; 다소 감소 41.7%, 뚜렷이 감소 33.3%)가 '영향 없다'(25.0%)보다 3배 많았음
- '경제행복지수'는 40.4점으로 2012년 하반기(40.4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2007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경제적 행복감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미래의 경제적 행복감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 20.2점, '경제적 불안' 29.0점으로 가장 저조하여, 전체 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48.7점으로 가장 높고, 경기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36.1점으로 가장 낮음
 -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지며, 여성의 경제행복지수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 연간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음

1.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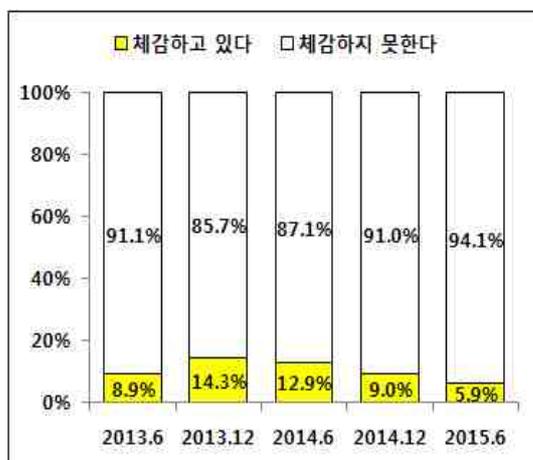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국민의 94.1%에 달하여, 전기(2014년 12월)대비 3.1%p, 전년동기(2014년6월)대비 7.0%p 늘어났으며, 2013년 이후 '체감경기가 가장 좋지 않음'을 보여줌

-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5.9%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음
- 2015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94.1%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단지 5.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94.1%)는 응답은 성별로, 혼인여부별로 특별한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강원도'(100%), 자산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100.0%) 계층에서, 직업별로는 '공무원'(88.5%)에서 차이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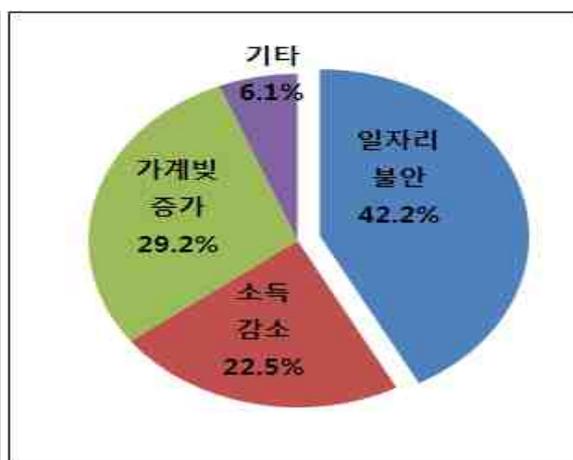
○ '일자리 불안과 '가계빚 증가'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일자리 불안'(4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6개월전에 비해 크게(11.6%p) 높아져서, 최근 고용시장 사정이 6개월 전에 비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줌
- '일자리 불안'(42.2%)에 이어서, '가계빚 증가'(29.2%)와 '소득 감소'(22.5%)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경기회복체감여부 추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



주 : 경기회복 체감 여부에 관한 응답률 추이.

○ 우리 국민들은 '가계 빚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일자리 불안',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비의 여력이 많지 않으며, 연령별로 소비 위축의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생애주기별로 경제적 부담 요인이 달라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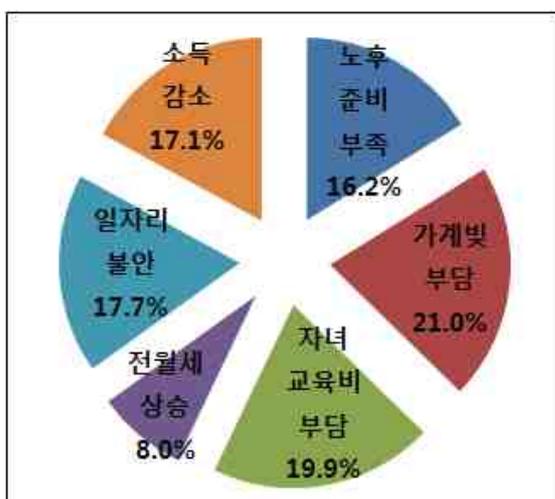
-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가계 빚 부담'(21.0%), '자녀교육비 부담'(19.9%), '일자리 불안'(17.7%), '소득 감소'(17.1%), '노후준비 부족'(16.2%) 등으로 순으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21.0%가 '가계 빚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답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남
- '전월세 상승'은 8.0%로서 상대적으로 소비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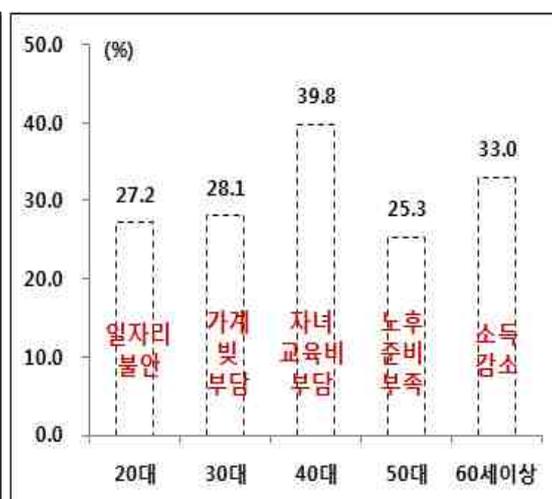
- 20대는 '일자리 불안', 30대는 '가계 빚 부담',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 50대는 '노후준비 부족', 60대 이상은 '소득감소'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음

-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소비 위축'의 주된 원인이 달라서, 생애주기별로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음
-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20대는 '일자리 불안'(27.2%), 30대는 '가계 빚 부담'(28.1%),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39.8%), 50대는 '노후준비 부족'(25.3%), 60대 이상은 '소득감소'(33.0%)를 꼽음

<소비 위축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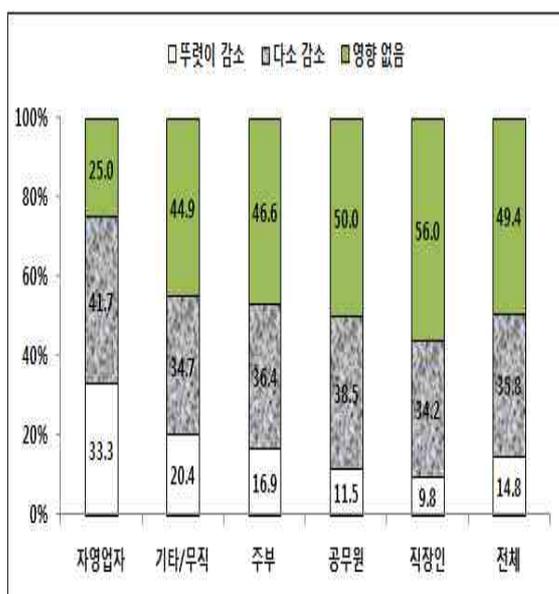


<연령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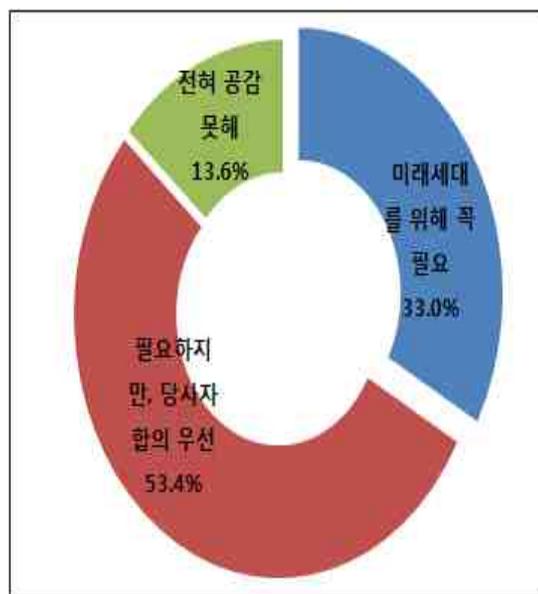


- 메르스 사태가 소득·소비의 위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영향 있다'(50.6%)와 '영향 없다'(49.4%)가 큰 차이 없었지만,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75%대 25%)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남
 - '영향 없다' 49.4%, '다소 감소' 35.8%, '뚜렷이 감소' 14.8%의 순으로 응답하여 '영향 있다'('다소 감소' + '뚜렷이 감소')는 응답이 50.6%에 달함
 - '뚜렷이 감소'(14.8%)라는 답변을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33.3%로서 평균(14.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떨어지는 '직장인'은 9.8%로서 가장 낮았고, '공무원'도 11.5%로 낮았음
 -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소비 감소'를 훨씬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
-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연금, 노동 등)에 대해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 우선'(중립적)이라는 의견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적극 찬성)는 33.0%, '전혀 공감 못해'(적극 반대)는 13.6%를 기록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의 경우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 우선'(중립적)이라는 의견이 71.2%로서 평균(53.3%)보다 훨씬 더 높았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적극 찬성)는 11.5%로서 전체 평균(33.0%)보다 크게 낮았음

<메르스 사태의 소득·소비 영향>



<정부 구조개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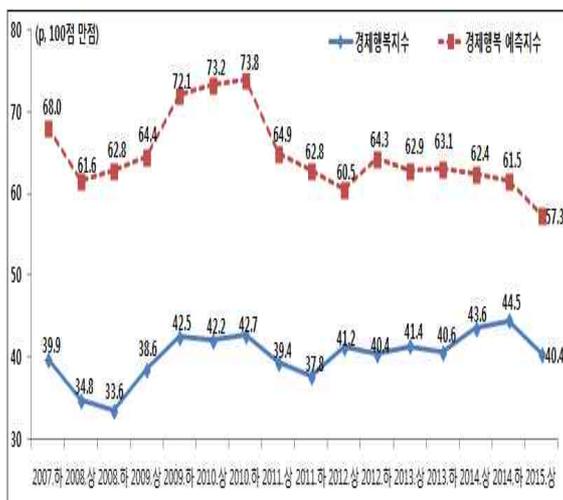


2. 경제행복지수¹⁾의 추이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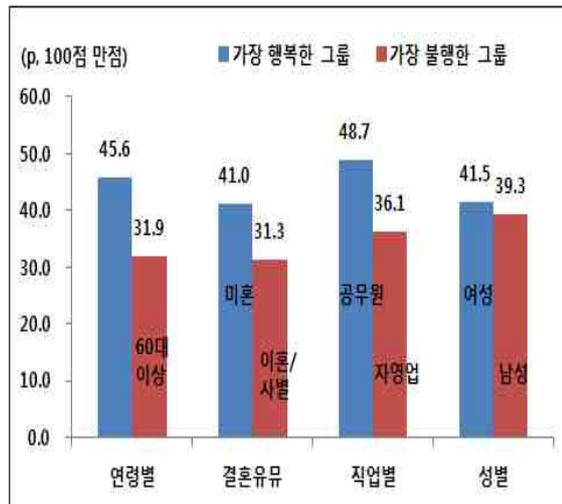
○ (종합평가) 2015년 상반기 경제행복지수는 40.4점으로 2012년 하반기(40.4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前期(2014년 하반기)대비 4.1p 하락, 前年同期(2014년 상반기)대비 3.2p 하락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경제행복지수의 큰 폭 하락에 더해서, '경제행복 예측지수'²⁾는 역대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드러냄
 - 2015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100점 만점에 57.3점으로 전기대비 -4.2p, 전년동기대비 -5.1p 크게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줌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부진과 불안감을 반영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지수'가 2007년 12월말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이혼 및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자영업 종사자'이며,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20대, 미혼, 여성, 공무원'으로 드러남
 -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다른 직업에 비해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복감이 가장 높음

< 경제행복지수 추이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불행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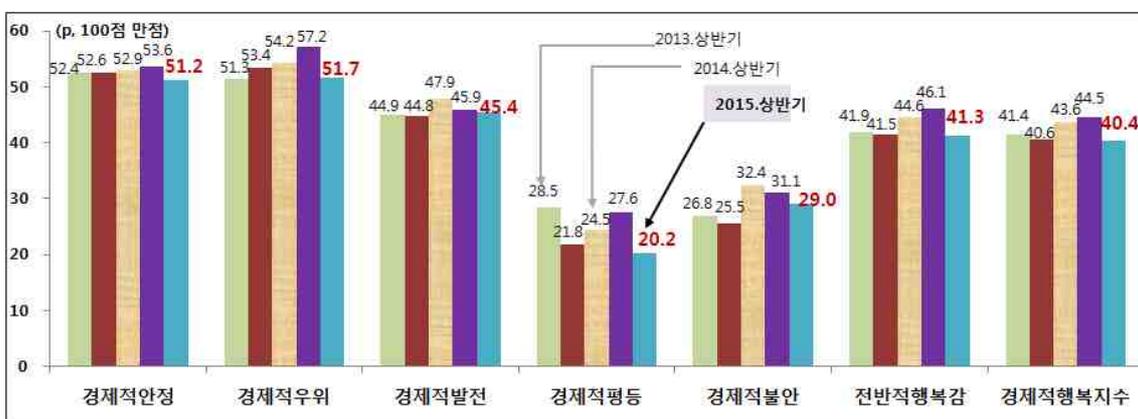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경제행복지수의 조사 개요, 정의, 구성요소,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 자료 참조.
 2)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50점을 넘으면 낙관적 예측이 비관적 예측보다 많음을 의미.

○ (항목별) 6개 구성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 20.2점, '경제적 불안' 29.0점으로 가장 저조하여 전체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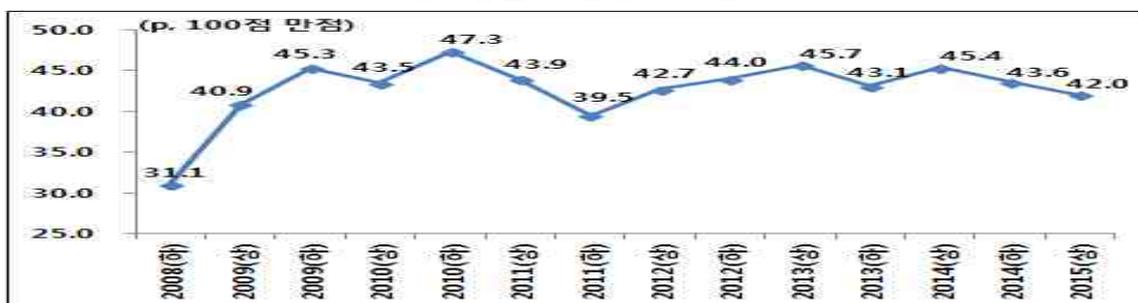
- '경제적 우위'와 '경제적 평등' 2개 항목은 각각 전기대비 5.5p, 7.4p 하락했으며, '전반적 행복감' 역시 前期대비 4.8p 하락함
-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2개의 질문 中 '현재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성'은 60.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노후 경제상황의 안정성'은 42.0점으로 크게 하락함
- '경제적 평등'을 구성하는 2개의 질문 中 '현재의 불평등'(25.0점)에 비해 '향후의 불평등'(15.4점)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이 많았음

< 항목별 경제행복지수 비교 >



-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
- '경제적 안정'의 두 번째 질문('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인 것 같다')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21.6%, '반반이다' 40.9%, '아니다' 37.5%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2.0점이며, 2010년 12월의 47.3점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에 대한 예측 >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임.

○ (직업별)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경제행복감이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가 36.1점으로 가장 낮았음

- 계속되는 저성장과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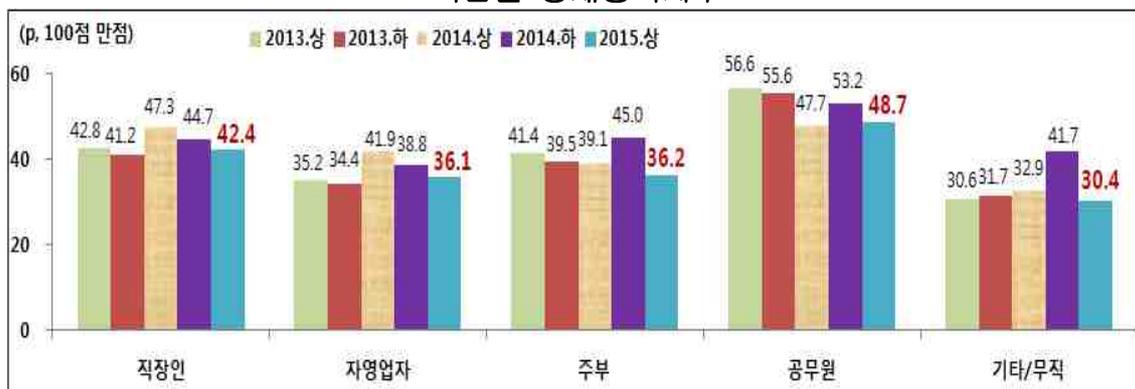
· ‘공무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48.7점으로 가장 높지만, 前期의 53.2점에 비하면 4.5p 크게 하락했음

· 이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낮은 상태를 유지

· ‘주부’의 경제행복지수가 8.8p 크게 하락했으며, ‘기타/무직’도 11.3p 크게 하락하여, 이 두 그룹이 최근의 경기 부진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

< 직업별 경제행복지수 >



○ (연령별)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3.0p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50대의 경우도 전기대비 -6.1p 하락하는 등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

- ‘20대’의 경제행복지수가 45.6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 -3.3p 하락한 반면, ‘60대 이상’은 31.9로 가장 낮았고 전기대비 -13.0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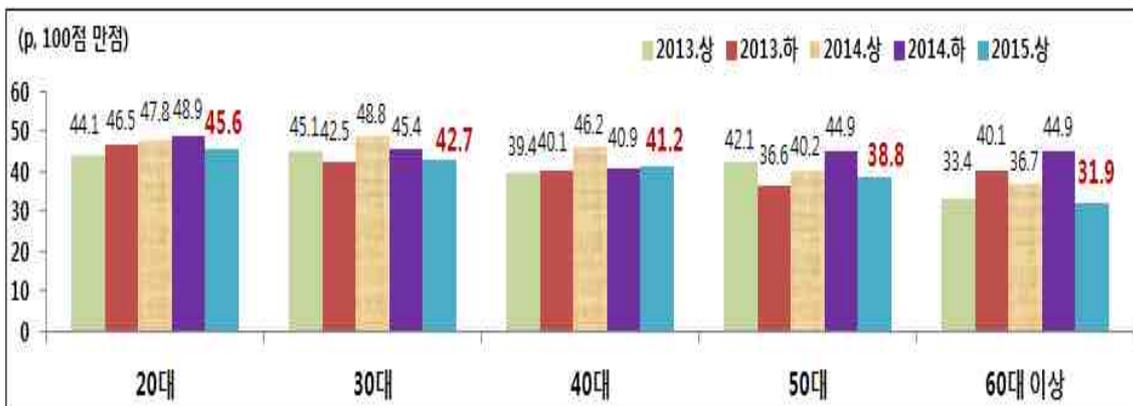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전기대비 -3.3p 하락한 45.6을 기록했으며, ‘30대’는 -2.7p 하락했으나 42.7을 기록하여 전체 2위를 기록함

· ‘40대’의 경우 0.3p 상승하여 41.2를 기록하여 중간 정도의 순위를 유지함

· ‘50대’(38.8)와 ‘60대 이상’(31.9)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행복지수도 낮아지는, 우하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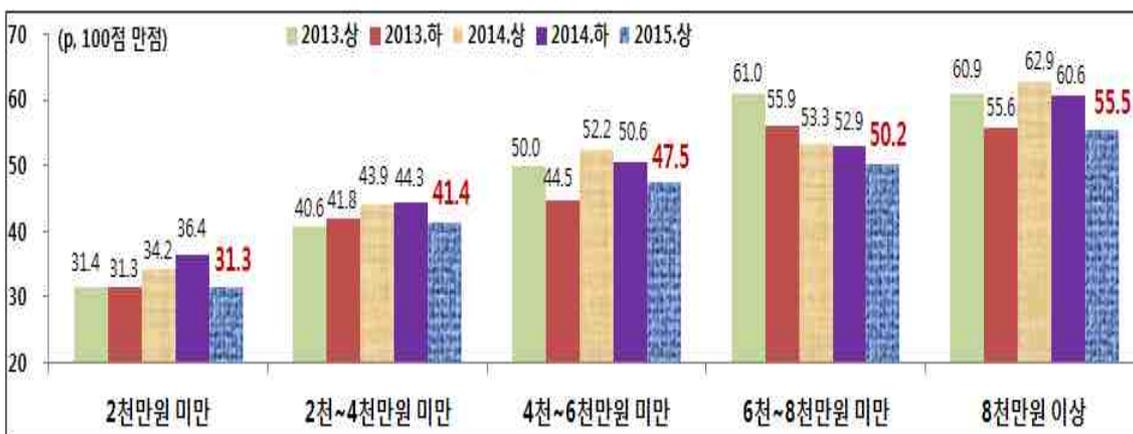
- 1회~16회 평균 : 20대(46.1) > 30대(43.5) > 40대(39.5) > 50대(36.8) > 60세이상(35.8)
- 제15회(2014년 12월) 조사에서 반영된 '기초연금 확대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음

< 연령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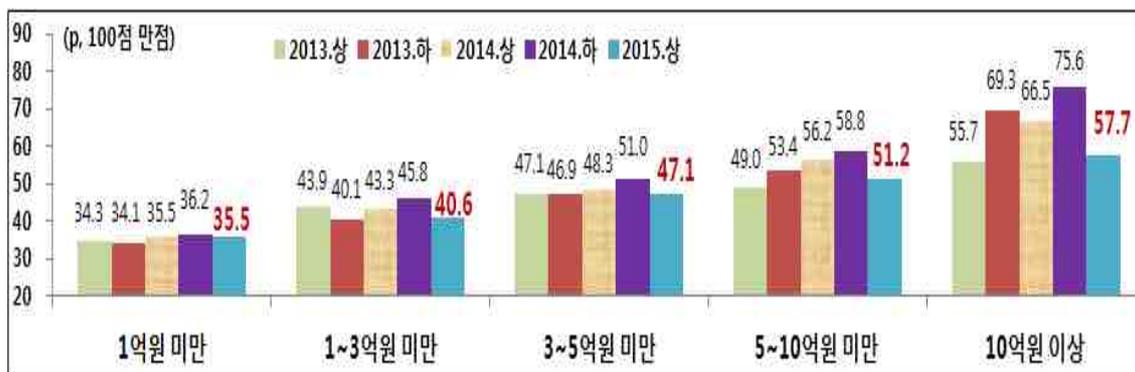
- (소득별)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추세는 여전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6천~8천만 원 미만'과 '8천만 원 이상' 등 고소득 계층의 경제적 행복감도 그리 높지 않음
- 모든 소득계층의 행복감이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6천~8천만원 미만'의 행복감은 50.2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5.1p 하락
- 이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해, '6천만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가구들의 경제적 여건도 어렵다는 점을 반영함

< 소득별 경제행복지수 >



- (자산별)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 계층의 경제적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음
 -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지만,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대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여건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행복지수'는 자산이 많을수록 높는데, 금번 조사에서도 그 경향이 다시 한 번 드러났음
 - 그러나, '5억~10억원 미만'의 경제행복지수는 51.2점으로 前期대비 -7.6p 하락했고, '10억원 이상' 자산가도 57.7점으로 前期대비 -17.9p 크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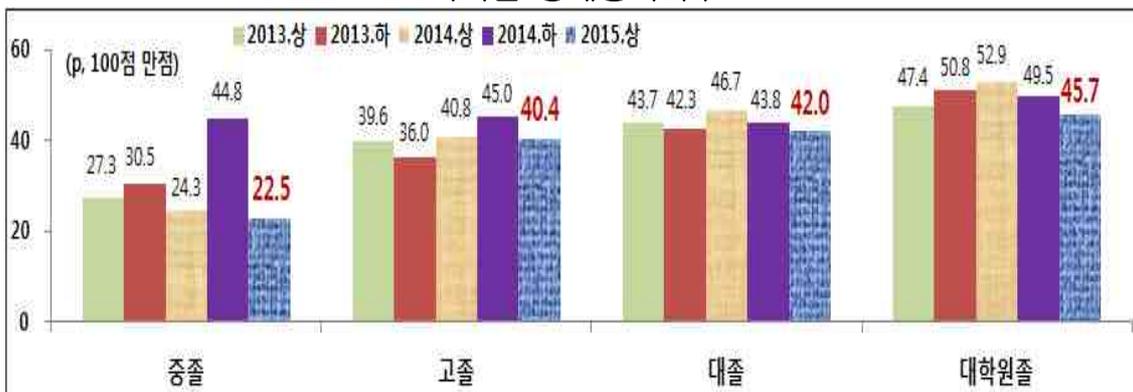
< 자산별 경제행복지수 >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력과 소득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의 경제행복지수는 40.4점으로 전체 평균(40.4점)과 동일했으며, 대졸(42.0), 대학원 이상(45.7) 등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행복지수 값도 높아짐
 - 대학원졸 학력자의 경제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8p 하락하여 45.7을 기록했으나, 전체 순위는 가장 높았음
 - 대졸 학력자의 경제행복지수 역시 전기대비 -1.8p 하락하여 42.0을 기록했으며, 특히 '경제적 평등'(18.4), '경제적 불안'(29.7) 지수 값이 매우 저조함
 - 중졸의 경우 경제행복지수가 22.5점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고졸의 경우에는 40.4점으로 전체 평균 값(40.4)과 동일함

< 학력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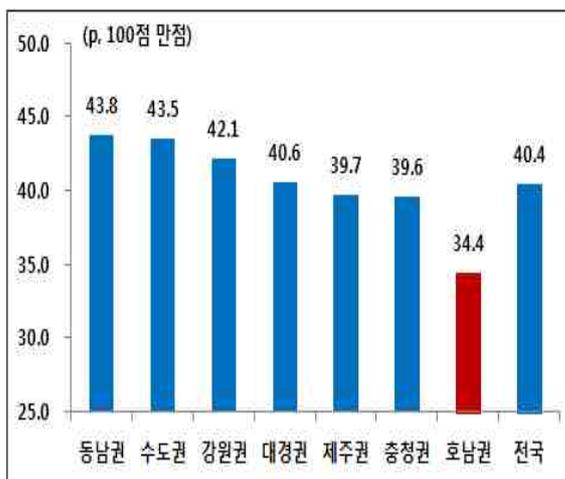


○ (지역별) 16개 시도별로 '경제행복지수'의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소득 (GRDP)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경남, 울산, 부산 등 '동남권'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반면, '호남권'의 경제적 행복감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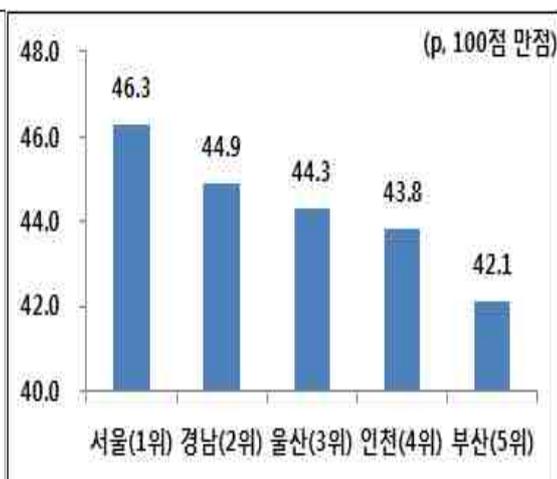
- 16개 시도별로 평균해본 결과, 서울시, 경상남도, 울산시, 인천시, 부산시 등 5개 시도의 '경제행복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5+2 광역경제권별로 비교해본 결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편임

< 광역경제권별 경제행복지수 >



< 광역시도별 경제행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 5개 시도만 표기함.

3. 시사점

- 경제적 행복감의 큰 폭 하락에 따라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성 제고,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물가, 고용)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성과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은 모든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추경 등 재정정책의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함
 - '경제행복 예측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가시화시키기 위해,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등 정책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연령별(세대별)로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세대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함
 -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20대는 '일자리 불안', 30대는 '가계부채 부담',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 50대는 '노후준비 부족', '60대 이상'은 '소득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정책조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별첨> '경제행복지수'의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19일(9일간)
- 조사 방식 : 전화설문 조사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810명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
- 오차 범위 : 95% 신뢰 수준에서 $\pm 3.5\%$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이혼·시별
명	404	406	103	203	211	195	98	599	199	12
%	49.9	50.1	12.7	25.1	26.0	24.1	12.1	74.0	24.6	1.5

구분	직업별					소득수준별				
	직장인	자영업	주부	공무원	무직/기타	2천 미만 만원 미만	2천-4천 만원 미만	4천-6천 만원 미만	6천-8천 만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명	482	108	118	52	49	240	351	158	41	20
%	59.6	13.3	14.6	6.4	6.1	29.6	43.3	19.5	5.1	2.5

구분	자산규모별					학력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억 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345	267	113	49	14	62	173	522	53
%	43.8	33.9	14.3	6.2	1.7	7.7	21.4	64.4	6.5

구분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명	51	51	50	51	50	50	50	51	51	50	51	50	51	51	51	51
%	6.3	6.3	6.2	6.3	6.2	6.2	6.2	6.3	6.3	6.2	6.3	6.2	6.3	6.3	6.3	6.3

2. 지수의 정의 및 구성 요소

○ ‘경제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제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나라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순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순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구성됨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행복 예측지수’)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의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가중치 0.5 적용)에 50을 더하여,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이 나오고 여기에 가중치0.5를 곱하고, 50을 더하면 ‘예측지수’는 6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경제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